

GMP 귀국 보고서

인적사항

성명	김민혜	학번	201811061
이메일	mi_nne@naver.com		

대학원명	University of Birmingham (MSc Public Management)	(국가) 영국
기 간	2019.1.15-2019.12.11	[귀국일: 2019년12월15일]
첨부서류	GMP 2년차 보고서 (3페이지 이상; 10pt. 1줄 간격)	

본인은 **GMP 2년차 과정** 수료 후, 귀국 보고서를 제출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표지 이외에 3페이지 이상의 보고서를 제출하며,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함.

1. GMP 2년차 대학에서의 초기 생활적응
(기후, 지리적 위치, 생활관련 사항, 자녀학교 등)
2. GMP 2년차 대학의 전반적인 교육의 질에 대한 인상
3. 수강신청 및 이수에 대한 경험, 평가, 후배를 위한 제안
(학기 당 수강과목 수, 각 수업의 구성, 논문작성 강도 등)
4. 기숙사 또는 아파트 및 음식에 대한 평가, 제안 등
5. 기타 활동에 대한 경험담
6. GMP 2년차 경험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
7. 비자, 출·입국, 기타 해외생활에 대한 정보
8. 후배들에게 하고 싶은 말

교학처장 귀하

2019년 12월 15일
신 청 인 : _____ 김민혜 _____ (인)

1. 초기 적응 생활

영국 버밍엄대학교가 소재하고 있는 버밍엄(Birmingham)은 지리적으로 영국의 중앙에 위치하고 있어, 영국내 여러 도시로 이동이 편리함. 특히, 버밍엄 공항은 런던의 히드로 공항 다음으로 규모가 크고 유동인구가 많아 유럽내 주요국으로 이동하는 항공편이 많아 교통이 매우 편리하며, 버밍엄 대학교내에 기차역(University Station)이 있어 공항으로 이동도 편리함. 한국에서 버밍엄으로 입국시, 버밍엄 공항으로 입국이 가능하기 때문에 런던 히드로 공항으로 입국하여 몇 시간씩 육로로 이동해야 하는 타 도시에 비해 입국시에도 편리한 점이 있음 (다만, 직항은 없고 암스테르담 또는 프랑크푸르트 등 최소 1회 경유하여야 함)

영국의 기온은 한국에 비해 사계절 기온이 비교적 일정한 편이며, 일년중 대부분의 날이 흐리고 다소 쌀쌀하며 소량의 비가 자주 내렸다 그쳤다 하는 것이 특징임. 12월부터 2월까지의 기온이 낮으나 영하로 내려가는 경우는 거의 드물며,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눈이 내리는 경우도 많지 않은편임. 특히, 겨울에는 해가 매우 짧아서 오후 15~16시 경에 이미 해가 지고 매우 어두운 것이 특징임. 그러나 3월부터 9월경까지는 날씨가 쾌청하며 여름이지만 습도가 낮고 기온이 많이 높지 않아서 매우 쾌적한 날씨를 경험할 수 있음. 여름동안에는 낮시간도 매우 길어서 밤 9시-10시 경에야 어두워짐

버밍엄은 영국내에서도 이민자의 비중이 매우 높은 도시이기 때문에 (파키스탄 등 무슬림, 인도, 중국인 등) 외국인으로서 적응에 큰 어려움이 없는것도 좋은 점이며, 인종차별을 받는 사례도 드문편임. 또한 대학교 바로 인근에, 런던 한인타운인 뉴몰튼 다음으로 큰 규모의 Seoul Plaza가 있어서 한국 식재료를 흔하게 구할 수 있는 점이 매우 큰 장점이며, 중국 마켓, 중국 베이커리 등에서 한식과 유사한 식재료, 간식거리를 쉽게 구할 수 있어 생활에 어려움이 없음. 또한 버밍엄은 영국 제2의 도시로 큰 규모의 백화점, 쇼핑센터 등이 다수 있기 때문에 저렴한 가격의 질 좋은 생필품도 어렵지 않게 구매할 수 있음

자녀가 있는 경우, 대다수 공립학교를 보내게 되는데, 영국 생활에서 가장 어려웠던 점은 좋은 공립학교에 아이를 입학시키는 점이었음. 공립학교는 외국인의 경우에도 학비가 무료이며, 각 학급당 평균 30명이 정원이며 담임교사 1명과 보조교사 1명이 배정됨. 공립학교는 원칙적으로 근거리 배정을 하나, 형제자매가 있는 경우 같은 학교에 보낼 수 있도록 형제자매 우선권이 있으며, 기타 장애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카운실에 요청하면 원하는 학교에 우선 배정 받을 수 있음. 영국의 공립학교는 9월에 새학년이 시작하기 때문에 KDI 제휴대학을 통해 12월중 입국하는 경우 공립학교 입학이 어려운 애로가 있음. 보통 새학년이 시작되면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교를 옮기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자리가 없어 집에서 가까운 학교 등 원하는 학교에 배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 인근 모든 학교에 정원이 찬 경우에는 차로 30분이상 떨어진 먼 거리의 학교를 보내야 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음. 한국과 달리 '학군'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집에서 가까운 학교가 있어도 그 학교에 자리가 없으면 먼 거리의 학교를 보내야 하는 것이 어려운 점이었음. 학교를 보내야 하는 아이가 있는 경우 8월 출국을 추천함.

사립학교의 경우, 학비가 1년에 약 2000~3500파운드 정도이며 학급당 정원이 적고(15~20명), 교과과정이 national curriculum을 따르지 않고 조금 더 심화된 교육과정 등 학교 차원에서 자율적으로 정하여 교수하는 점이 특징임.

2. 2년차 대학의 전반적인 교육의 질에 대한 인상

버밍엄 대학교의 MSc Public Management 과정은 퍼블릭 매니지먼트의 이론과 다양한 여러나라의 사례, 공공 정책의 전략 등 공공부문에 특화된 수업과정이며, 한국 이외에도 중국, 동남아시아 등 다양한 국가의 공무원들이 함께 수학하는 과정임. 특히, 영국만의 고유한 Commissioning 등 새로운 공공 서비스 공급의 개념과 사례 등을 배울 수 있는 것이 흥미로움.

또한, 버밍엄 대학교의 경우 학교 규모가 매우 크며, 영국내 대학중에서도 시설 규모가 크고 시설투자에 힘쓰는 편이기 때문에 도서관 등 학습을 위한 시설이 매우 편리함. 도서관 이외에도 learning center, education center 등 다양한 건물에 학습 공간이 갖추어져 있으며, 강의실 규모나 시설도 매우 훌륭한 편임

강의를 담당하는 인력은, professor부터 lecturer까지 다양하며, strategic management, leadership, digital governance 등 다양한 분야를 전공한 인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외에도 오랜기간 영국의 공직(City Council 등)에 종사한 전직 또는 현직 공공부문 인사들의 강의도 들을 수 있음. 또한 일부 강의의 경우, 현직 공공부문의 직원들과 함께 수강하는 Executive Programme 도 있어서 다양한 주제로 토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음

3. 수강신청 및 이수에 대한 경험

버밍엄 대학교의 경우 수강신청이 온라인으로 이루어 지지 않고, 학기별 타임테이블을 확인하고 학과실의 담당인력에게 수강을 희망하는 과목을 알려주면(이메일로) 학과실에서 등록하여 주는 방식으로 이루어짐. 전공 학생수 대비 강의 수용능력이 충분하여 수강 경쟁 등은 없으며, 희망하면 타 대학의 강의도 자유롭게 수강가능함

MSc Public Management의 경우 전공필수과목(Core Module) 3과목, 선택 과목(Optional Module) 3과목, 그리고 12,000자 내외의 Dissertation을 이수해야 졸업과 학위취득이 가능함

강의는 KDI와 마찬가지로 교수의 강의, 그룹토의, 그룹 활동, 발표 등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며, 평가는 과목당 2회의 에세이 제출로 이루어짐 (보통, 강의 중간에 제출하는 에세이는 1,000자 에세이로 총 평가의 30%를 차지하며, 강의 이후에 한달의 여유를 두고 제출하는 에세이는 3,000자 에세이로 총 평가의 70% 를 차지함)

평가에 있어서는 무엇보다 표절에 유의하여야 하며(학기 시작전 반드시 수강해야 하는 '표절예방 워크샵'이 있음), 수업시간에 토의한 내용 외에도 과목마다 주어지는 reading source를 풍부하게 활용하여 작성하고, 한국의 사례를 접목하는 등 이론을 실제와 연계하여 이해도를 보여주는 것이 높은 점수를 받는데 유리함

4. 주거 및 식생활 관련

영국의 집은 크게 House, Flat으로 구분되는데, 하우스의 경우 보통 1,2층으로 나누어져 있어 1층은 거실과 주방, 2층은 침실로 이루어지고 Flat의 경우 한국의 아파트와 유사하다고 생각하면 됨. House의 경우 garden이 딸려 있는 등 한국과 다른 영국의 주거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한국처럼 단열이나 난방이 잘 되지는 않는편이어서 추운 단점이 있음. Flat은 관리하기 쉽고 하우스에 비해 따뜻한 장점은 있으나, 한국과 마찬가지로 층간소음 등의 문제가 있을 수 있는 단점이 있음. 버밍엄의 경우 대도시이기 때문에 Rent 하우스 공급이 풍부하고, 한국인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어 Rent를 구하는데 특별히 어려운 점은 없음. 유학생 가족들의 경우 보통 Selly Oak, Northfield 등의 지역에 주로 거주지를 구하며, 평균적으로 월세는 700~900파운드 정도로 높지 않은 편임.

집은 Rightmove, Zoopla 등의 부동산 사이트를 통해 구할 수 있으며, 영국 입국전이라도 이메일, 전화 연락 등을 통해 계약이 가능함 (다만, 영국은 법적으로 집주인이 임대시 tenant의 합법적 거주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비자가 나온 이후 최종계약이 가능한 것이 원칙임)

버밍엄에는 대규모의 Seoul Plaza가 있어 한식재료를 쉽게 구할수 있고, 대도시이기 때문에 다양한 외식도 가능하여 편리함. 고기, 과일, 야채 등 식재료 물가는 한국에 비해 매우 저렴한 편임 (예컨대, 과일의 경우 오렌지 8~10개에 1파운드 수준). 다만, 외식을 할 경우 외식물가는 한국과 비슷하거나 다소 높은 편임 (1인당 약 10~12파운드 수준)

5. 기타 활동에 대한 경험담

영국은 운전대가 우리나라와 반대이고, 한국에 비해 도로폭이 매우 좁아서 운전이 어려움이 있음. 운전이 자신이 없는 경우 도로연수를 받고 운전을 시작하는 것을 추천함

6. GMP 2년차 경험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후배들에게 하고 싶은 말

KDI수료이후 해외 대학 진학시, 8월 출국 또는 12월 출국 선택이 가능하나, 대다수의 외국대학 (영국, 미국)이 가을학기에 시작하기 때문에 8월 출국을 추천함. 해외에서 학업을 시작하는 시점을 선택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장점이 있으나, 12월 출국의 경우 실제로 경험해 본 개인적인 느낌은, 다른 학생들이 전부 가을학기에 시작하고, KDI에서 온 학생들만(금번 버밍엄 대학교의 경우 2명) 봄학기에 입학하게 되어 행정절차, 논문 시작시기 등에서 어려움이 있었음 (예컨대, 논문의 경우 일반 학생들은 9월 입학이후 11월경 주제 선정, 지도교수 배정 등을 통해 비교적 여유있게 논문 작성 일정을 확보할 수 있는 반면, 1월에 입학하게 되면 대학의 행정 일정상 일반 학생들과 마찬가지로 11월이 되어서야 주제 선정, 지도교수 배정 등을 받게 되므로 시간이 매우 촉박해지게 되는 단점이 있음)

7. 비자, 출입국, 기타 해외 생활에 대한 정보

비자는 Tier 4 General student의 경우 학기 시작-종료일보다 약 5개월의 여유를 더해서 발급해주기 때문에 약 1.5년 기간의 비자를 받을 수 있음.

